

LG화학, 석유화학 사업 부진했다!

교보증권, 1/4분기 순이익 2600억원에 불과 ... 나프타·에틸렌 상승

LG화학은 2014년 1/4분기 영업실적이 다소 부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보증권 손영주 연구원은 “LG화학은 2014년 1/4분기 매출액이 5조72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영업이익이 3482억원으로 14.84%, 당기순이익은 2600억원으로 23.62%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LG화학의 2014년 1/4분기 영업실적 악화는 중국의 석유화학 부진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시장 침체 등에 따른 편광판 가동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 부문은 나프타(Naphtha) 투입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중국의 준절연후 이후 수요가 둔화돼 일부 가격이 하락했고, PVC(Polyvinyl Chloride)는 원료 에틸렌(Ethylene)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진했다.

다만, 전지사업 부문은 원통형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의 어플리케이션 다양화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전지사업은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중대형 LiB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폴리머전지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소형전지 영업실적도 양호해 성수기로 진입하는 2/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사이클 상승이 예상된다”며 “원통형 LiB 판매 증가 및 2015년 신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수주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14>